모든 도둑질의 근원, 태도(太盜)

(출22:1~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도둑질의 근원, 태도(太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든 도둑질의 근원, 태도(太盜)'
모든 도둑질의 근원이 태도(太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동작을 뜻하는 태도(態度)가 아니라 클 태(太)에 도적 도(盜)자를 쓰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가장 큰 처음을 태초(太初)라고 하고 가장 큰 바다를 태평양(太平洋)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큰 도둑이 태도(太盜)입니다.
가장 큰 도둑의 처음 도둑질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도둑질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붙여보았고, 역사상 도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도둑이 있고, 루팡 같은 괴도가 있고, 의적도 있고, 큰 도둑을 일컫는 대도가 있고, 태도(太盜)는 인류역사상 첫 도둑질이면서 가장 큰 도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도둑질 중에 가장 큰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전령의 신이 굉장히 쾌활한 도둑의 신으로 나오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복형인 아폴론이 키우는 소 50마리를 훔치는 도둑질 솜씨를 보여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쾌활한 도둑질의 헤르메스와는 다르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괴로운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우스에게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가져다줍니다. 신화대로라면 인간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준 영웅인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코카서스 산 정상에 쇠사슬로 포박 당하게 되고, 그 간을 독수리가 쪼아 먹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면 밤사이에 쪼아 먹은 자리가 다 나아서 또 다음 날에 독수

리가 쪼아 먹습니다. 매일 이 고통을 받아야했는데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대 의적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연산군 때의 실존인물이었는데 허균이 소설화 했습니다. 또 임꺽정이 있고, 조선 후기 숙종 때에는 장길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911년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가 사라졌던 적도 있었는데 2년 후에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최근에는 54억 짜리 300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엄청나죠. 밀워키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1바이올린 수석연주자의 바이올린인데, 세 명의 도둑들이 전기충격기로 이 분을 정신을 잃게 한 후에 훔쳤다가 미국의 FBI에 의해서 잡히고 되찾게 됩니다. 정계의 부패나 탈세도 다 도둑질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한 행위가 도둑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도둑질들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있어왔고, 신화 속에서조차도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역사상 최고의 도둑질은 역시 아담과 하와가 했던 도둑질이고 그에 비할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도둑질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고, 살인죄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이 도둑질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도둑질은 인류를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살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도둑질했다고 하니 굉장히 큽니다. 54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도둑질한 것도 큰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명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부정부패나 탈세로 몇 백억을 얻었다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나리자를 도둑질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도둑질을 해서 프로메테우스가 날마다 간을 쪼아 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불행한 삶이 도둑질의 대가로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 도둑질의 내용물이 바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관여하시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인간이 1억이든 30억이든 70억이든 이 세상 모든 인류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 생김새가 어떻든지, 내가 누구의 아들딸이든지, 인종에 상관없이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 한분입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치듯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쳐온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도둑질을 하지 않았던 분이 한분 계신데 그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요8: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

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말씀하실 것이 많지만 하나님아버지께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사셨다고 하십니다.
또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어야 했고, 아담도 바로 이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가 도둑질을 하며 타락을 하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인간의 삶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하시는데 동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행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만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다면 내 삶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판단한 주체성이 발동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이고 이 도둑질이 없어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내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깨닫고 답을 낼 수 있는 한 도둑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연법 상의 도둑질, 사회법 상의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본문에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형제들을 향해서 욕하는 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를 따라서 해석하자면,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는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 네 마리로 갚으라고 하는 시민법적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도둑질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둑질의 연장선상에서 가축의 관리 소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맡겨놓은 물건이나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이 결국 도둑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의 상실과 피해를 가져다 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를 주고도 입 싹 씻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도둑질이고, 내가 가져오지 않았어도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서 능청맞게 시치미 뚝 떼고 물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정부패, 사기, 절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잘못 할 때가 있습니다.
도둑질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를 왜 도둑질을 하느냐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주석서들이나 상식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석서는 “율법이 도둑질을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한 이유는 도둑질이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져버리고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악한 생각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신성한 의무가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으로 창3:17-19절을 이야기합니다.
즉,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악한 생각 때문이고, 신성한 노동을 피하려는 생각 때문이라고 창3:17-19절의 말씀을 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하는 이것이 신성한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도둑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신성한 노동입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신성한 노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의 저주받은 노동을 말하는 것이고, 타락한 에덴 밖에서의 노동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자면 저주받은 노동의 차원에서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결코 무위도식하며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도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고 노동 중의 상노동으로 다른 사람 다 자는 새벽에 움직여야하고, 은행 강도를 한 번 하려면 몇날 며칠을 은행을 살피고, 경보시스템을 다 꿰뚫어야 하고, 금고의 종류를 파악하고, 설계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집중력과 노동의 결과로 은행 강도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노동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겠다고 직장에 나가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노동을 하는 것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의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한 다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왜 갖게 됩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을 책임지지 않는 한 나는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라고 인간을 만드신 적이 없는

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내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런 상황이 좋은 것이고, 저런 상황은 나쁜 것이고, 돈이 없으면 나쁜 것이고,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판단하게 되는 주체성을 훔친 자의 입장이 되다보니,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강박증이 도둑질도 정당화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 강도짓을 해서 걸리지만 않으면 그 돈을 기쁨으로 씁니다. 영화에서 보면 은행 강도짓이 잘되면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그런 은행 강도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양심에 걸리지만 않으면 남의 물건 쓰는 것이 아주 즐겁고 당연시하고 사회법상으로 걸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벌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 도둑질이라는 것이고, 도둑질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타락하기 전의 신성한 노동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노동이고 타락전의 아담이 했던 노동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긍정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것으로 이것이 신성한 노동입니다. 어제 식으로 말하면 귀를 문에 대고 송곳을 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다는 결심이고 이게 종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주체성은 이 삶의 현장에서 무단이탈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삶의 현장에 마음이 찰싹 달라붙어서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관점에서 보자면 무단이탈은 큰일 날 일로 “내 마음의 주체성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 이 마음의 주체성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무단이탈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가장 중범죄로 여겨지는 ‘무단이탈’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고, 신성한 노동은 마음의 주체성이 무단이탈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를 장갑삼아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친 증거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삶의 현장은 뷔페식당이었습니다. 뷔페에 가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음식이 다 떨어지면 또 다시 나와요. 몸집이 큰 씨름선수 100명이와도 음식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뷔페입니다. 그 음

식의 재료가 떨어지면 다른 음식으로라도 채웁니다. 그런데 이 뷔페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면서 일반 단품메뉴를 파는 식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안수집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주물항"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특별한 메뉴로 제주에서 금방 올라온 팔뚝만한 갈치를 구워서 1인분씩 주는 식사가 있고 고등어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갈치구이를 1인분씩 시켜서 내 것을 확보하고 공동으로 고등어조림을 시키게 됩니다. 네 사람이 갔다면 고등어조림을 대자로 하나 시키고 각자 갈치구이를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시킨 갈치구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등어조림이 바닥이 날 때까지 그것만 먹어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로 여기에서 도둑질이 나옵니다.
김 집사님이 집으려고 했던 고등어 살점을 이 집사님이 먼저 채가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평화(平和)'라는 한자가 같을 평(平)자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화(和)는 벼 화(禾)자에 입 구(口)자를 합친 것으로 입에 들어가는 쌀의 양이 같을 때에 평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주체성을 도둑질한 상태이다 보니 이 강박증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의식이 인간의 마음을 몰아가기 때문에, 확보해야 하고 한 달에 200-300만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이 강박증이 커지다보면 허영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허영심을 부리다보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적당히 가져가면 되는데 허영심 때문에 엄청나게 가져가다 보니 회사원들이 조금 밖에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이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먹어서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굶어죽습니다. 이것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질도 스트레스성 증후군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치고 나니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원래는 뷔페로 내가 필요한 만큼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치고 나니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도 확 바뀌게 되었고, 거기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받던 노처녀가 집에 와서 양푼에 이것저것을 넣고 밥을 막 비벼먹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치고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도둑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왜 생기는지 알기나 알아요?

주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태초의 도둑질에 유전적으로 매여 살고 있는 인간과 다르게, 예수님의 주체성이 무단이탈해버리셔서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사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셨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셨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목숨까지도 당신 것이었는데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지옥의 삶으로 살게 하는 태초의 도둑질로부터 해방시켜주시기 위해서 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쳤던 것을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서 그 훔친

주체성을 반납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쳐서 살고 있는 내가 죽도록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죽어서 우리의 주체성은 하늘을 향하는데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3: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주체적인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쳐서 괜히 스트레스 받으며 내가 책임져야겠다고 하면서 도둑질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법상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지라도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시고, 그 직장에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라는 것이지, 돈 벌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했다고 받는 돈은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라고 주시는 돈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판단할 때에는 항상 모자랍니다. 내 판단의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여 버리고 하나님의 주체성에 맡겨버리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현재 명품 백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옆집의 아줌마는 명품 백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성을 반납하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명품 백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분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삼만 원짜리 백 하나를 들고 다닌다고 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친 것을 깨닫고 반납하고,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나의 주체성을 죽여 버리고, 오직 내 주체성은 하늘을 찾는 데만 몰두해버리면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만 좋은 것을 사야하고, 비싼 것을 사야하고, 사고 또 사야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주체성을 도둑질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끊임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합니다.

도둑질은 내게 진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옷이 세 벌이나 필요한가? 필요 없다면 도둑질입니다. 다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심하게 도둑질로 만연돼있고 오염돼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도둑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은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며, 나의 주체성은 하늘을 찾는 데만 활성화되게 해주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신성한 노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에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